

조선족,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민족정체성 연구

안정민 · 최혜진 · 표정민 · 권유선 · 한혜민*
(한국의외국어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광주대학교)

1. 서론
2. 조선족과 고려인
 - 2.1. 정의 및 이주 시기
 - 2.2. 계승어 사용 양상 변화
 - 2.3. 출입국 정책 및 한국과의 관계
3. 연구 방법 및 설문 결과
4. 논의
 - 4.1. 한국어문화효능감 차이 요인 분석
 - 4.2. 한국에 대한 관심 차이 요인 분석
5. 한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향상 방안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집단인 고려인과 조선족의 한국,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민족어와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요구되는 조선족과 고려인 한국어 교사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선족 교사들은 고려인 교사들에 비해 한국어와 문화적 효능감이, 고려인 교사들은 조선족 교사들에 비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 제1저자 : 안정민, 교신저자 : 한혜민, 공동저자 : 최혜진, 표정민, 권유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주국의 민족정책과 언어정책, 재외동포정책, 한국 내에서의 위상 등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국에 대한 인식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어 교사, 민족정체성, 재외동포, 언어 능력, 문화 효능감

1. 서론

조선족과 고려인은 한국의 특수한 재외동포¹⁾ 집단이다. 이 두 집단은 현재의 인구 규모²⁾나 세대별 특징에는 차이가 있지만, 집단 형성의 배경이 유사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유지 및 계승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조선족은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³⁾성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을, 고려인(고려사람)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舊)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³⁾

조선족과 고려인은 구한말에 대기근 등을 피해 국경을 넘어가 정착했거나 일제 강점기에 민족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피해 한반도를 떠난 사

1) 「재외동포재단법」(2020.11.27. 시행) 제2조(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 기술되어 있는 재외동포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2019년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재외동포 거주지역은 미국(2,546,982명)이며, 중국에는 2,461,386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177,270명), 러시아(169,933명), 카자흐스탄(109,923명)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9).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조선족(<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435>)’ 및 ‘고려인(<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73>)’의 정의 참조(검색일: 2021-08-13).

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주 초반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주 동기였지만,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항일 운동가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정치적인 망명, 임시 정부 조력자들의 이주,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전쟁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계속 잔류한 사람 등 이주의 이유가 다양해졌다. 이들은 혈연적으로는 한인이지만 거주 국가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민족적 정체성이 변화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민족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문화와 소속감을 표현하는 수단(Gao, 2009)으로 여겨져 민족어의 사용은 민족정체성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으며, 조선족과 고려인이 사용하는 언어도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로 분류할 수 있다. 계승어란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거나 언어 접촉,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⁴⁾

본 연구는 한민족 재외동포 중, 가장 주요한 두 집단인 조선족과 고려인 중에서도 계승어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계승어 교사로 활동하면서, 내적, 외적으로 민족어와 민족문화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 학습자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에게는 한국어나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 외에도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로서 자긍심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다운, 2019).

다른 재외동포에 비해 한국어 교사가 계승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일본 한글학교에서 학부모들은 혈연적 요소를 한민족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반면, 교사들은 한국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어(김경령, 2019), 한국어 교사들은 자신이

4) 계승어에 대한 정의는 '사회의 소수 언어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배우는 언어(Valdés, 2000)',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조태린, 2014)',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외국어(foreign language)와는 다른 개념으로 계승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태생적으로 공유하는 언어 의식이 존재한다(김대회, 2012).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민족어와 민족문화에 대해 높은 지식과 인식을 요구받는 조선족과 고려인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주의 동기, 역사 등 상당 부분에서 확연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두 집단에서, 민족정체성 유지와 전수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한국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향후 재외동포 한국어와 문화교육의 방향성 정립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과 조선족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문화효능감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같은 민족정체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려인과 조선족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문화효능감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같은 민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에 대해 한국어문화효능감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족 교사와 고려인 교사 총 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2019년 재외동포재단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선족 및 고려인 한국어 교사로, 현지 한국 공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2. 조선족과 고려인

2.1. 정의 및 이주 시기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주어졌는데, 중국 정부는 1950년대 변방에 있는 소수 집단에 대한 조사 식별 사업을 진행하고 50여 개의 소수 민족을 지정하였다. 중국 동북 지방의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와 개혁·개방 시기에 소수 민족 정책의 혜택을

보았다. 한편 ‘고려인’은 아시아를 비롯한 구(舊)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 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뜻하며 대부분의 고려인 당사자는 ‘고려사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현지 고려인 학자들과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⁵⁾ 고려인이라고 불린 기원은 1920년대 정도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생 과정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황영삼, 2016).⁶⁾ 즉,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 정착한 조선인을 중국 공민으로 인정하면서 부른 정치적 용어이며,⁷⁾ ‘고려인’은 민족이 스스로를 지칭한 데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두 집단에 대한 명칭에는 형성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중국과 조선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었다. 조선족이 이주하여 터전을 마련한 ‘간도’라고 불리는 지역은, 청나라 시절에는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정하여 중국과 조선인 모두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러나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흥년 등으로 두만강을 넘어 이주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지역은 조선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조선족이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 초로 추정되며 본격적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된 시점은 19세기 이후에 들어서다(강수옥, 2013; 황기우, 2004). 이 시기 일제 침략으로 유민화된 농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이주하였다(이정은, 2010).

러시아와 조선은 1860년 북경조약 이후, 중국(청나라)이 러시아에 봉금지대인 우수리를 할양하면서 비로소 국경으로 만나게 되었다(Park, J., 2018). 러시아 이주 한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상당한 수준의 교육 및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37년을

5) ‘고려인’ 혹은 ‘고려사람’ 등으로 불리는 사람 대다수는 주로 함경도 북부지역 이주자들을 말하며,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사할린 카라푸토 광산 등에 일본에 의해 강제 이주된 한인들은 ‘사할린 한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계르만, 2013). 한국 정부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른 고려인 법안과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6)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 출신 지식층에서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고려국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자는 의미도 있었지만 비귀화 한인과 차별화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한다(Park, J., 2018:238).

7) 재외동포포럼(<http://www.dongpoforum.kr>)

기점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고려인의 이주는 크게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해주 남부 지역으로의 농업 이민 등 경제적 이주기(1860년대~1905년), 러일조약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항하여 지식인들이 대거 이주한 시기(1905~1937년), 강제이주 이후 소련 해체 이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민족의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하던 시기(1937~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는 시기(1991년부터 현재)로 구분된다. 이주 초기, 공산주의 건설 시기, 소련 연방시기, 소련 해체 후 등 시기별로 거주국의 달라진 민족정책에 따라 고려인의 지위나 처지는 매우 달랐으며, 현재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른 처지에 놓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정현 · 장우권 · 김홍길, 2006; 박보리스 · 부가이 니콜라이, 2004; Park, J., 2018).

요컨대, 1860년대에 조선족과 고려인의 초기 이주는 사람들이 살지 않던 불모지로의 이주이자 경제적인 이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거주국의 여건에 따라 다른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세대를 지나오면서 현재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2.2. 계승어 사용 양상 변화

조선족과 고려인의 계승어 교육과 사용 양상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소수 민족 정책과 이중언어 정책에 영향을 받아 왔다. 조선족은 조선어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중언어교육은 중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조선족 지구는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고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1906년에 조선족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이 설립되기에 이른다(안병삼, 2013; 황기우, 2004). 이후 동북 각지에 다수의 민족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1945년에는 일제의 간도사범학교를 연길사범학교로 개편하여 조선족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1949년에는 조선족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인 연변대학이 연길에 설립되었다(황기우, 2004).

중국 공산당은 '과학의거 민족의원(科學依據 民族意願)'의 원칙에 따라 스탈린의 민족관을 차용하여 해당 민족이 특정 지역에서 공동 언어를

사용하며 공동의 경제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소수민족을 선별해 왔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민족 정책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조선족을 예로 들어왔다. 중국에는 40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55개 민족에게만 소수민족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조선족은 55개 소수 민족 집단 중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장 빠르고 교육 수준도 가장 높은 우수한 집단으로 인정받아왔다. 조선족은 스스로 중국 내에 우수 소수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조선족의 교육열은 중국 소수 민족 내에서도 월등하며 뛰어난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황기우, 2004; Gao, 2009).

조선족은 1950~1960년대 반우파 투쟁,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 현대 중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집거 지역을 형성하여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치를 행하였던 것이 조선족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족에게 있어 조선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구사능력은 경제력이자 중국에서의 지위, 자부심을 뜻한다. Zhou(2000)은 티베트 학생과 조선족 학생의 중국어(보통어) 구사 능력을 비교하면서 조선족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중언어 교육을 받아서 다른 소수민족들에 비하여 중국어 구사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족의 높은 교육 수준은 이들의 경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1978년)과 한중 수교 이후(1992년)부터 조선족 사회의 붕괴가 시작되며 조선족 학교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조선어 사용의 입지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아메리칸드림처럼 ‘한국 드림’을 꿈꾸는 조선족의 한국행⁸⁾과(Gao, 2014)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하여 조선족 집거 지역이 해체되고 조선족 학교가 통폐합되었으며 조선족학교 교사마저도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홍매, 2009;

8) 한국에서 조선족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충돌도 잦은 편이다(Kim, 2003).

박금해, 2008; 선봉규, 2018; 정낙찬 · 김홍화, 2004; 한혜민 · 김재욱, 2019; 황기우, 2004). 이에 따라 조선족학교에 교사가 부족해졌음은 물론, 이 자리를 비전공 교사로 대체하여 교사의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조선족학교 내 조선어 사용량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김연옥, 2009; 선봉규, 2018), 학습자들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에도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어 실력은 저하되고 중국어는 한족 학생만큼 구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더구나 조선족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하여 조선어의 사용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선봉규, 2018).

고려인의 경우,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는 한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한국어가 교육언어로 유지되었다. 이는 당시 레닌의 소수민족 정책과 맞닿아 있다. 혁명 초기 레닌은 소수민족의 구어를 문어로 정착시키고 민족지역에서의 교육은 해당 민족언어로 실시하며 모든 민족 언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민족언어 사용을 권장하였다(이용권, 2001). 그러나 혁명이 마무리되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1938년에는 러시아어가 소련 전 지역의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는 법령이 선포되었다. 이 조치로 모든 민족언어의 동등한 대우는 무너졌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고작 주 2~3시간 배우는 외국어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어 사용은 소련 고려인들 속에서 등한시되었고 자연스럽게 러시아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점차 고려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1언어로 굳어져 갔다. 특히 1958년의 교육 개정안은 러시아어 확산에 주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조치로 평가되는데, 민족어 교육에 큰 타격을 주었다(허승철, 1992:150). 이러한 소련의 언어정책으로 인하여 1958년에서 1989년 기간 동안 고려인의 언어 교체율은 약 32.1%에 이른다(허승철, 1996:44). 고려인들은 1938년 강제이주 이후 50여 년 동안 순 한글 신문 「레닌기치」를 발간하고, 조선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계승어와 민족문화를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련 고려인들 속에서 한국어는 점차 잊혀 갔다.

정이리나(2013)에서는 고려인은 노년층의 약 83%가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청년층은 약 82%가 러시아어 등 거주 국가의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9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며 한국어는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한영균, 2013).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다(임영상, 2008). 이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한국어를 계승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정이리나, 2013; 김경준·김태기·이지연, 2015).

요약하자면, 조선족의 계승어 교육은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에 따라 고유성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최근 중국 내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조선족 사회가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고려인의 계승어 교육은 구(舊)소련의 러시아어 중심의 교육 정책과 함께 고려인들이 소련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러시아어를 구사해야 했으므로 지속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2.3. 출입국 정책 및 한국과의 관계

조선족들은 1980년대에는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쉽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큰돈을 벌게 되면서 조선족의 ‘코리아 드림’이 시작되었다. 조선족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였으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내 불법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 1995년 한국 정부에서는 조선족을 재중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사증을 받아야지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제정된 한국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조선족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방문취업을 5년간 복수로 허용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등의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조선족은 한국 체류 여부로 정체성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정균·황승연·김중백(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비해 더 강한 독립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국적자로 분류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보다 중국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박정균·황승연·김중백, 2011; 장운수·김해란, 2009). 다시 말해, 조선족은 남한과 북한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 문화, 생활 양식을 이어받은 고국으로, 중국은 정치적 의무와 납세를 하며 삶의 터전인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김수옥, 2013). 이렇듯 조선족은 이주 전의 고국과 이주 후의 모국이라는 이중적인 국가 정체성이 함께 하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정은, 2010).

고려인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목도하였고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진 세계적 환경과 고려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맞물려 한국 이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광신·김형태, 2011). 특히, 2001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조선족과 고려인이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것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으면서 고려인의 국내 취업과 거주에 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김민송, 2021).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나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고려인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에 기반하기보다는 유학이나 노동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는 청년 세대 고려인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델파이조사를 활용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관련 현재 이슈를 분석한 김경준 외

(2015)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 CIS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경제적 안정성을 찾으려는 고려인들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통합을 위해서 CIS지역에 남아있던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김경학, 2015; 김영술·홍인화, 2013).⁹⁾ 이에 따라 고려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외부적으로도 그러할 것이 요구되는 현지 계승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한 근거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민족 동포 중 이주의 시작점은 유사하지만 정주국의 상이한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발전해온 두 디아스포라 집단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그 근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설문 결과

조선족과 고려인 한국어 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2019년 7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되었다.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한국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는 7월 31일에 서면으로 실시하였고, 조선족 한국어 교사는 2019년 8월 2일 온라인 링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9)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경기도 안산이나 광주외의 경우 고려인들이 주를 이루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 새날학교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로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김경학, 2015).

〈표 1〉 응답자 기본 정보

항목	세부 사항	고려인	조선족	합계
성별	남	1	3	4
	여	26	36	62
연령	21~25세	5	1	6
	26~30세	0	2	2
	31~35세	3	2	5
	36~40세	3	8	11
	41~45세	3	10	13
	46~50세	2	6	8
	51~55세	1	9	10
	56~60세	6	1	7
	61~65세	3	0	3
	66~70세	1	0	1
경력	1년 미만	2	1	3
	1년 이상~5년 미만	11	3	14
	6년 이상~10년 미만	2	2	4
	10년 이상~15년 미만	4	5	9
	16년 이상~20년 미만	5	6	11
	20년 이상	3	22	25

응답자 수는 조선족 한국어 교사 39명과 고려인 한국어 교사 27명이며, 문항 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조선족 한국어 교사와 고려인 한국어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요인에서 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분석 요인 및 요인별 해당 문항

요인	요인명	항목
요인 1	한국어 문화 효능감	-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 현재 한국어 방송(TV), 신문,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집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자주 먹습니까?
요인 2	한국에 대한 관심	-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습니까?
		-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친구들과 한국 관련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 한국의 역사, 전통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 조선족/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다른 사람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또 방문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요인인 한국어문화효능감은 조선족 한국어 교사(M= 4.43, SD= .49)가 고려인 한국어 교사(M= 3.93, SD= .77)에 비해 높은 한국어문화효능감을 나타냈고 평균 차이는 유의미 했다($t(40.42) = -2.92, p < 0.05, d = .92$).

두 번째 요인으로 추출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고려인 한국어 교사(M= 4.23, SD= .40)가 조선족 한국어 교사(M= 3.85, SD= .60)에 비해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차이는 유의미했다($t(63.91) = 3.08, p < 0.05, d = .77$). 이주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선봉규·배준환(2018)은 조선족, 재일 한인,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민족 지향 질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4. 논의

4.1. 한국어문화효능감 차이 요인 분석

한국어문화효능감 차이 분석에서는 조선족 교사의 한국어문화효능감이 고려인 교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고려인 교사의 한국어문화효능감이 조선족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적으로 민족별 소국화를 반대하고 중앙집권적 대국주의를 견지하는 레닌적 통치이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의 자결권 유지와는 배치되는 개념으로, 고려인의 자치적인 교육 및 민족 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최미옥, 1997), 이주 초기에 활성화되었던 민족교육¹⁰⁾이 강제 이주 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소련은 러시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족 간 결혼을 장려했는데(김문옥, 1999),¹¹⁾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이념과 통치 방법의 영향 때문에 고려인들은 민족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민족어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셋째,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대리경험은 일반적으로 관찰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데(Bandura, 1977), 고려인들은 조선족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고려인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다중언어 구사가 요구되는 언어환경을 들 수 있다. 즉 러시아가 아닌 다른 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거주국의 민족어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언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다.¹²⁾

10) 강제이주 이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 포씨예트에는 한인직업기술교육학교가 있었으며, 국경 지역에는 380개의 한인보통학교 및 폴호츠와 공장노동자를 위한 대학예비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최영표 2004:139).

11) 김문옥(1999)은 고려인과 러시아인의 이혼이 매우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 고려인들이 일부 한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민족 간 상이한 식생활 문화, 전통 예식 행사의 이질감 등이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혼에 이른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12) 김경령(2019)은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들은 러시아어, 지역어 그리고 한국어라는 다중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류의 영향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큰 상황이다(김경준·김태기·이지연, 2015). 고려인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했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남한(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1990년 한·소 수교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 과정에서 한국인들과 직접적인 접촉도 하게 되었으며,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¹³⁾ 따라서 소련 해체 이전에는 북한의 조선어가 고려인 사회의 언어 규범에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소련 해체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한국의 어문규정이 고려인 언어의 바탕이 되고 있다(한영균 외,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세대에서는 한국어 효능감이 낮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고려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 한국 내 고려인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향후에는 한국어 효능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선족에게 중국어는 중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 교사들은 Gao(2009, 2014), Zhou(200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구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친다. 조선족 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은 실질적으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게 꼽는 요소이며 조선족 부모들은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조선족 학교를 선택한다(이정은, 2010).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화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집거 형태나 조선족 학교의 운영에도 변화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조선족의 경우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중국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승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려인의 경우는 소련의 소수 민족 정책과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서의 러시아어를 잘해야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승어 유지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과

13) 이후 1993년 러시아 고려인의 복권에 대한 법령이 통과되면서 완전한 명예회복을 받게 되었고 이후 한인들의 협회 및 단체가 조직되었다.

고려인의 한국어문화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주국의 국가 정책과 계승어 구사 능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4.2. 한국에 대한 관심 차이 요인 분석

한국에 대한 관심 차이 요인 분석의 경우, 고려인 교사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선족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 교사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조선족에게 한국이란 전통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정신적 뿌리이며 지역적으로도 한국과 밀접하며 교류가 잦은 나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기보다 일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는 중국인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고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는 차별과 사회적 선입견에 한국에서는 스스로를 조선족이라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려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한국이 현재 선진국으로서 유학이나 취업 기회가 매력적이며 거주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좀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족은 한국 내 지위와 대우에 대해 불만족하는 반면, 고려인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대해 기대함으로써 두 집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같은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주한 국가의 문화, 이주 시기의 역사적 배경,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출신국의 발전 상황이나 남북한 관계와 같은 정치적 문제, 현대에 이르러 한국인들이 고려인, 조선족 디아스포라 집단에 갖는 인식과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한국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요소는 앞으로 거주 국가의 소수 민족 정책,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거주 국가에서의 조선족과 고려인의 지위, 한국에서의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인식 및 지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금 조선족 사회는 대도시로의 이주, 한국으로의 이민

등으로 인구 급감 현상을 경험하며 조선족학교와 자치구를 유지하는 데에 위기를 겪고 있어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려인의 경우 2019년 이전까지는 성인이 된 고려인 4세, 5세의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했으나 2019년부터 이들도 법률적으로 동포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한국 국회의장은 최근 고려인 연합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고려인이 러시아인으로 주류 사회에 당당히 편입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¹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로 국내 고려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의 강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도 국내에서 차별을 겪거나, 노동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들도 지속되고 있어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집단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지켜보는 일은 향후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역동적 변화를 겪는지 조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5. 한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향상 방안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 교사들과 학자들(김선옥, 2018; 김홍매, 2009; 박금해, 2008; 선봉규, 2018; 이정은, 2010)은 현재 조선족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민족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소수민족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활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조선족학교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족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하여 조선어와 함께 중국어 구사 능력을 올릴 것(김홍매, 2009), 조선족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 교사 양성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선족의 민족교육 문제는 조선족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14) 코리아넷(https://www.korean.net/portal/global/pg_news_ok.do?mode=view&articleNo=1000651476)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선봉규, 2018).

고려인 한국어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고려인 자녀의 민족적 자긍심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학습 교재나 교육자료의 부족 문제뿐 아니라 교사의 부족, 교사의 전문지식 결여를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며(김경근, 2004), 현지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교수법 등의 재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김인숙, 2012; 서상국 외, 2005; 한영균 외, 2009).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 현지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들도 있다(안정민, 2020; 한영균 · 김수경 · 김류보비, 2009).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해 온 ‘중국 조선족학교교원 초청 연수’,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중국 및 CIS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모두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와 민족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두 집단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인 조선족과 고려인의 집단 비교를 통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국,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관점이 거주국가의 민족 정책 및 언어정책,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및 한국 내에서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문화효능감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앞으로 복잡다단한 현지 사회와 한국의 정치적, 정책적 변화 양상에 잘 적응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선족과 고려인 교사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옥(2013).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7(1), 89-101쪽.
- 고광신, 김형태(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회와 사회복지> 15, 45-84쪽.
- 김계르만(2013). 나는 고려사람이다, 국학자료원:서울.
- 김경령(2019). 아동반 한글학교 교사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16(2), 1-30쪽.
- 김경준, 김태기, 이지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학(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가족유형의 성격 - 광주광역시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 <디아스포라연구> 9(2), 37-67쪽.
- 김대희(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3, 35-59쪽.
- 김인숙(2012). 러시아 한국어 교육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할린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6, 261-293쪽.
- 김영술, 홍인화(201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1), 131-161쪽.
-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2006).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357-379쪽.
- 김홍매(2009). 중국 조선족학교의 글로벌 교육의 실태와 가능성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53-271쪽.
- 박금혜(2008). 글로벌시대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와 향후 과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53-70쪽.
- 박정균, 황승연, 김중백(2011).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6(1), 149-174쪽.
- 선봉규(2018). 조선어 교사를 통해서 본 조선족의 언어 사용과 조선족학교의 발전 과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37차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286-296쪽.
- 안정민(2020). CIS지역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한국어 교사 FGI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4(1), 263-290쪽.
- 이정은(2010).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 대련시 조선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151-193.
- 임영상(2008).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의 현황과 분석, <역사문화연구> 29,

3-46쪽.

- 장윤수, 김해란(2009). 한국인의 이주역사에 관한 일고찰 = 중국과 일본거주 한인역사 재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1, 225-238쪽.
- 정낙찬, 김홍화(2004).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교원양성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197-220쪽.
- 정다운(2019).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사의 핵심역량 탐색, <어문론집> 78, 443-475쪽.
-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총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5, 381-407쪽.
- 최영표(2004).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과제, <한국동북아논총> 9(31), 137-154쪽.
- 한영균, 김수경, 김류바(2009). 중앙아시아 3국의 한국어 교육 - 교육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20(2), 303-335쪽.
- 한혜민, 김재욱(2019).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63, 265-286쪽.
- 허승철(1996).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재외한인연구> 6, 40-65쪽.
- 황기우(2004). 중국 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 분석, <교육문제연구> 21, 95-118쪽.
- 황영삼(2016). 구소련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구조적 특징, <민족연구> 68, 162-197쪽.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Gao, F.(2009). Language and power: Korean-Chinese students' language attitude and practice,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0(6): 525-534.
- Gao, F.(2014). Identity and Multilingualism: Negotiating Multiculturalism among Ethnic Korean Teachers in China. In *Minority Education in China: Balancing Unity and Diversity in an Era of Critical Pluralism*. : Hong Kong University Press.
- Hur, S.(1992). 소련의 언어정책과 언어민족주의, *Rusistika* 3(1): 142-158.
- Kim, M.(1999). Uzbekistan-Korean : The Present Condition and Questions, *Korean Studies Quarterly* 22(1): 163-191.
- Kim, S.J.(2003). The economic status and role of ethnic Koreans in China. In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ed. C.F. Bergsten and I. Choi, 10127.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Kim, Y.(2009). A Survey of the Attitudes of Korean Primary and Middle

- School Teachers towards Language, Korean Language in China 2009(2): 55-60.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and A. Patten, eds.(2003).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Clarendon Pres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533.
- Lee, C.J.(1986). China's Korean minority: The politics of ethnic education, Boulder, CO:Westview Press.
- Lee, Y.(2001). The Language Policy and the Bilingualism in Russia,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13(2): 119-141.
- Pak, B., Bugai, N.(2004). 140 years in Russia. Essay on the history of Russian Korean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Moscow.
- Park, J.(2018).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History of Russian Koreans), 도서출판 선인(suninbook): Seoul.
- Suh, S., Kim, S.(2005).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Studies and Korean Language Lecture Programs Abroad -In the Case of Russia: An Analysis of the Textbooks Being Used-, Slav newspaper 20(2): 131-148.
- Valdés, G.(2000). The teaching of heritage languages: an introduction for Slavic-teaching professionals,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Slavic languages and cultures. Olga Kagan and Benjamin Rifkin: 375-403.
- Zhou, M.(2000). Language Policy and Illiteracy in Ethnic Minority Communities in China,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1: 129-148.

필자 소개

성 명 안정민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ahnjm@hufs.ac.kr

성 명 최혜진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jyyny@koti.re.kr

성 명 표정민
소 속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행정관 1315호
전자우편 jmpyo@gwangju.ac.kr

성 명 권유선
소 속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스쿨 조교수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청강가창로 389-94 문서관 402호
전자우편 imyousun@ck.ac.kr

성 명 한혜민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조교수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자우편 hmhan@hufs.ac.kr

Abstract

Study on Ethnic Identity of Joseonjok and Koryoin Korean Language Teachers

Ahn, Jeongmin · Choi, Hye Jyn · Kwon, You Sun ·

Pyo, Jung Min · Han, Hae M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hung 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Gwangju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s of Korea,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between Koryoin and Joseonjok, who are the representative Korean diaspora, and examined the causes from various angle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66 Joseonjok and Koryoin Korean teachers, who are required high knowledge and awareness of ethnic language and its cultur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s stud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at Joseonjok teachers have a higher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efficacy than Koryoin teachers, while Koryoin teachers have more interest in Korea than Joseonjok teachers. In order to find out where these differences were originated, this study examined various factors such as ethnic policy and language policy of their resident country, overseas Korean policy, and their status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e process of changing Korean Diaspora's perception towards their home country dynamically.

[Key words] Korean Diaspora, Korean Language Teacher, Ethnic Identity, Korean Ethnic Group, Language Competence, Cultural Efficacy

투고일 2023. 07. 06 / 심사일 2023. 07. 15 / 게재확정일 2023. 07. 20

www.kci.go.kr